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0년 8월 뉴스레터 vol. 34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뉴스레터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여러분은 조합원입니까, 회원입니까?

채우고 비우고 눈물이 하는 말을 들어라

장례 후기 벼랑 끝에서 만난 한겨레두레

특별 기고 내 어머니 간병일기

알쓸신장 수의(壽衣) 뭇이 중한디?

메멘토모리 죽는 것보다 늙는 게 걱정인

숫자로보는 채비 한국 장례문화의 문제점

조합 소식 제1기 상주학교 후기

여러분은 조합원입니까, 회원입니까?



장면 #1

최근에 모친상을 치른 조합원이 인사하러 왔다. 정성껏 모셔주어 고맙다는 말을 거꾸하던 조합원이 막 걸리 몇 순배 오가니 묻는다.

“그런데 너무 싸요. 리무진 필요 없다고 취소했더니 몇 십만 원을 또 돌려 주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뭐 남아요? 선배 월급은 제대로 나와요?”

장면 #2

작년 이 맘 때 ‘채비장례’ 사업 심사자리에서 어떤 심사위원이 불쑥 물었다.

“귀사의 조합원과 일반 상조회사 회원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미처 대답할 틈도 없이 다른 질문이 이어졌고 시간이 다 되는 바람에 그냥 그 자리를 나왔지만 줄곧 그 질문이 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장사에서 가격은 원가+마진으로 구성된다. 이 등식에 따라 온갖 방법으로 원가를 줄일수록,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가격을 올릴수록, 업주가 가져가는 이익이 많아지는 반면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 이 때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메커니즘이 ‘시장경쟁’이다. 재료를 너무 줄여 옆집에 비해 맛이 없거나, 비슷한 맛인데 옆집에 비해 한 톨이라도 비싸면 소비자는 바로 옆집으로 가버려 실력 없이 욕심만 많은 장사꾼은 망하게 되는 원리다. 이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이 많다. 상조시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누구에게나 장례는 갑자기 닥치는 것이어서 관, 수의 등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게다가 큰 슬픔에 빠져야 할 상주가 상스럽게 가격을 흥정하거나 합리성을 따지는 일은 전통적 효 관점에서선 아예 금기다. 상조회사들은 바로 이런 약점을 파고 들어 “아드님이 참 효자십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오분 만에 십만 원짜리 수의를 오십만 원에 팔고 뒷돈과 리베이트를 챙긴다.

이와 같은 시장의 실패에 대해 강력한 해법이 있으니 예비상주들이 협동하여 장례지도사를 고용하고 관, 수의 등 용품을 공동구매하여 스스로 장례를 치르는 방법이다. 한겨레두레 협동조합이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

이제 질문에 답해보자. 한겨레두레에서 상을 치르면 진짜 싼가?

대형상조인 P상조 390만원에 해당하는 상품이 우리 조합에서 치를 경우 공동구매 원가에 조합운영비 24%를 더한 금액이 290만원 정도 되니 이들보다 1~2백만원 싸다. 상조회사가 가져갈 이익을 최소한의 조합운영비를 빼고 회사의 주인인 조합원에게 모두 돌려주어 이처럼 싼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운영비 24%로 운영은 제대로 되는가?

각자 매월 납부하는 3만원 중 20%인 6천원은 해당 지역조합 운영비로, 4%인 1천2백원은 회원조합이 모여 결성한 연합회 운영비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200명 조합이라면 월 조합비 수입은 120만원, 전국 조합원 3천명인 연합회의 수입은 월 360만원이다. 이 돈으로 회원조합은 조합원 모임과 장례문화개선활동을, 연합회는 공동구매, 장례지도사 네트워크 운영, 조합원 및 회계관리, 장례문화 개선활동, 채비아카데미 운영, 취약계층 장례지원 등을 해내야 하는 것이다. 이 정도 돈으로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이런 일을 하고 있거나 할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사업대상으로서의 회원에서 사업주체로서의 조합원으로 변신한다. 우리 모두는 상조회사의 호갱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시작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을 상업화 하는 상조회사를 바로 잡고, 약자들의 장례를 지원하며, 문제투성이 장례관행을 개선하고 싶다는 열망 또한 함께 뜨겁다. 이처럼 공통의 필요와 열망을 협동과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업체가 협동조합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만든 우리 조합에 관심을 갖자. 우리가 열망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고 우선 각자가 속한 조합에 물어보자. “우리 조합원은 몇 명이고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그렇게 할 때 ‘24%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

김상현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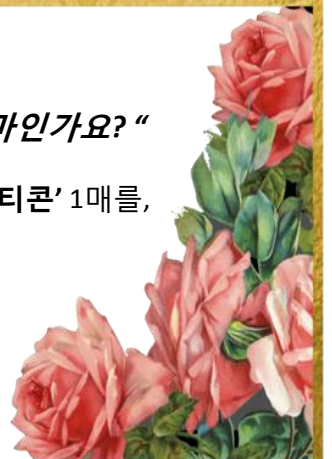
우리 조합 알기 캠페인 1탄

“내가 속한 조합의 조합원은 몇 명이며, 2020년 연간 운영예산은 얼마인가요?”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10분 추천하여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매를,
그 외 모든 분들께는 ‘GS25편의점 1000원 기프트콘’ 1매 증정합니다

설문 기간: ~2020년 9월 6일(일)

설문 참여하기



*전체 중 운영비의 비율을 의미하는 ‘24%의 기적’은 조합의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칼럼입니다

눈물이 하는 말을 들어라



당신은 언제 울어보았는가. 3년 묵은 체증 내려가듯 목 놓아 실컷 울어본 적은 언제인가.

세상은 울음을 조롱한다. 비웃는다. 귀찮아한다. 조용히 흐느끼는 정도라면 눈감아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눈물을 펄펄 쏟으며, 코를 팽 풀어 가며 목놓아 운다면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다. 심중팔구 그러할 것이다.

그가 아이라면 시끄럽다 할 것이고, 성인남자라면 수컷답지 못하다 할 것이고, 성인여자라면 재수 없다 할 것이다.

그래서 어린 아들이 기름때 절은 작업복을 입고 야간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형체도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죽어도 조용히 혼자만 올라 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채 피어보지도 못한 채 시퍼런 바다에 수장을 당해도 그만 올라 한다.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죽어도 부검을 해야 한다며 입을 닫으라 한다.

아무것도 아니라 한다. 너만 겪는 거 아니라 한다. 그만하라 한다. 유난 떨지 말라 한다. 더 이상 울지 말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 열어 제대로 울어보지 못했다. 이상한 사람처럼 비칠까 봐 눈치를 보았다. 속울음으로 넘기고 참았다. 꼭꼭 기형적인 어떤 소리가 울음을 대신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호통을 치고 명령할 수 있단 말인가. 당하지 않은 자는 당한 자 앞에서 무조건 아무 소리 말고 웃기를 여며야 한다. 뭐라고 함부로 짚어대지 말아야 한다. 가만있어야 한다. 죽어보지 못한 자는 닥쳐야 한다. 손가락총을 함부로 쏘지 말아야 한다. 흘린 눈을 감아야 한다. 적어도 자신이 한번쯤 인간이라 여긴다면..... 그 일이 언젠가 너에게 닥칠 수 있으니.

울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울어야 건강해진다. 한을 쌓아두면 병이 되고, 진실을 은폐하면 적폐가 되고, 세상은 지옥으로 변한다. 울지 못하게 억박지르고 목 조르고 가해자가 큰 소리 치는 세상, 그게 현재 우리 모습이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피정을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 눈물의 은사(恩賜). 추기경은 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눈물을 선물로 달라했을까. 그는 알고 있었다. 메마른 감성으로는 인간성을, 영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수분이 빠진 나무는 결국 말라 죽는다. 슬픔에 둔감한 사회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다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평생 교회 종지기로 살다 깨끗하게 생을 마감한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은 차디찬 교회당 마룻바닥에 대한 기억을 기록한 적 있다. 그 마룻바닥에는 새벽기도를 하던 신도들이 떨어뜨린 눈물이 얼어붙어 투명한 보석처럼 반짝거렸다. 나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기도의 힘을 믿는다. 새벽기도의 힘은 치유의 능력이 크다.

왜 우는가. 그것은 간절함의 정수이다. 간절함의 진동이 마음에 퍼져 울음으로 터져 나온다. 그러니 이제 울지 말라고 하는 자들을 믿지 말자. 슬픔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라는 자들을 경계하자. 가만있으라고 억박지르는 자들을 용서하지 말자. 그리하여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울음이 천둥처럼 터져 나오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며칠 전 새벽, 아직 여명이 밝아오기 한참 전 잠은 달아나고 정신이 명료해졌을 때, 갑자기 얼마 전 돌아가신 은사 생각에 울적해졌다. 그러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운 이들까지 하나씩 떠오르는데, 왈칵 울음을 토하며 눈물을 쏟았다. 엉엉 울었다. 그 모든 이들이 그림고 서럽고 고마워서. 나의 삶에 동반한 이들이 참 많았구나. 눈물이 나를 씻어주었다. 실로 오랜 만에. ✿

눈물이 하는 말을 들어라/ 네가 아픔으로 사무칠 때/

눈물이 조그맣게 속삭이던 말을 잊지 마라/ 눈물이 네 얼굴에 쓴 젖은 글씨를 잊지 마라/

눈물은 네가 정직할 때/ 너를 찾아왔었다/ 네 마음의 우물에서/ 가장 차가운 것을 퍼올려/

너를 위로하고/ 너를 씻겨주었다/

네 눈물을 기억하라/ 눈물이 네게 고백하던 말의/ 그 맑은 것을 잊지 마라

-〈눈물〉 도종환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채우고 비우고’는 삶과 죽음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한겨레두레

지난 7월 28일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종로구마을자치센터장의 소개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분의 장례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 위한 전화였습니다. 2018년 임종한 조합원님은 부친상을 치르며 받은 조의금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했습니다. 그때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으로 지정기탁된 기부금은 그간 다양한 이들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장례지원이 끝나고 종로구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신현섭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입니다.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예방사업부터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사례관리사업까지,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번에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장례지원을 받게 된 분은 저희 센터의 회원으로 약 35년 간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입니다. 발병 이후부터 줄곧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서로에게 둘도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회원 분 외에도 3명의 자녀가 있지만 연락이 두절된 지 수 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약 2개월간은 와상 상태로 계실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회원 분은 그런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 돌보았고 수시로 안마를 해 드리면서 “엄마 건강해, 나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 라고 말하는 하나 뿐인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전 주에 회원 분의 집에 방문을 갔었고, 다행히 어머니는 그 전 주보다 기력을 찾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나 지나 받은 전화에서 회원분은 “선생님 엄마가 돌아가셨어”라고 말하며 엉엉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외근 중이었던 저도 길가에 서서 같이 울며 위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나 라는 걱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 가정은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회원의 수급비로만 생활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어머니가 1921년생의 고령이라 어머니의 형제들 또한 고령인 관계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문의해봤지만 어머니가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고, 정신건강사업만 하는 기관이라 자체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백방으로 연락을 취한 끝에 서울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알게 되었고,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머니의 시신을 연신 주무르고 목 놓아 어머니를 부르는 회원 분의 모습, 시신을 꽃으로 가득한 화관에 모셔주신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정성이 아직까지 회원분과 센터직원 모두의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조현병은 20대 초반에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환자들은 일찍부터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증상의 특성 상 가족 외에는 대인관계 없이 고립되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정신장애인과 노부모만 생활하는 우리 회원들의 여러 가정과 이들의 지친 삶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장례를 치르고 귀가하는 저희 센터 직원들의 마음이 먹먹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 회원 분은 이제 정말 혼자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몇 년 간 찾아오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사이는 더 각별했고, 누워있는 노모를 부양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어렵기는 했지만 회원 분은 어머니에게 심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회원 분의 삶의 동기와 재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너무 커져버린 어머니의 빈자리와

그동안 힘들게 어머니를 돌보았던 회원 분의 역할상실이 혹여나 정신과적 증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비할 바 없이 크지만 우리 회원 분들에게는 그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느끼게 된 사회의 따뜻함이 저희 센터와 회원 분의 삶에 여러 의미를 주셨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분명 이번의 경험이 회원 분의 애도과정과 재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분 어머니의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절차를 친절히, 성심껏 다해주신 협동조합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 조합원 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긴 장마에 건강과 안전에 더 유의하시고, 또 좋은 인연으로 뵈겠습니다. ✽



상주 신OO,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직원 드림

*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분들의 장례를 지원합니다.

내 어머니 간병일기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시급하고 소중한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들은 결코 단 한 번도 효자인 적이 없었고 늘 어머니의 속만 썩여 드리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키운 것이 절반이 아들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구강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10년 전쯤 어머니는 치주암 초기로 수술을 받았고 완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 속의 다른 부분에서 암이 발병해 이미 전이까지 진행된 말기 암이었습니다. 막막하고 후회막급이었습니다. 밖으로만 떠돌며 어머니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한 죄책감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입안은 물론 이빨, 턱뼈와 임파선 얼굴 일부까지 전이가 됐으니 수술을 하더라도 소생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던 일을 일체 중단하고 어머니의 간병에만 매달렸습니다. 처음 갔던 대학 병원의 의사는 어쨌든 수술은 해야 한다고 처방했지만 주변에서는 다들 수술을 말렸습니다. 친분 있는 의사들까지도.

수술로 끝나지 않고 수술 후 항암 방사선까지 받아야 하니 고령에 쇠약할 때로 쇠약해진 어머니가 견딜 수 없을 거라 했습니다. 수술 받으면 결국 더한 고통 속에 병상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수술, 방사선, 함암 등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진통제를 써서 고통을 줄여 가며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셔 생을 마치게 해드리는 것이 최선일 거라 했습니다.

실제로 말기 암 수술 후 완치보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합니다. 더구나 어머니의 암은 음식을 먹기도 어려운 입 속의 암이었으니 소생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 병원을 오가며 의사들과 상담하며 주변의 의견을 들을수록 수술을 안 받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덜 고통받고 살다 가시게 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통증이 병원에서 처방해준 마약성 진통제로도 줄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수술 받다 잘못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 극심한 고통이 잠시라도 덜어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신촌의 한 치과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볼의 암 덩어리를 제거하고 턱뼈와 이빨을 잘라내고 다리뼈를 이식하기까지 10시간의 대수술을 마치고 한 달의 회복기를 거친 후 곧바로 40키로도 안 되는 몸으로 30회의 방사선 치료와 4번의 항암치료를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발병 10개월 만에 죽음 앞에서 생환하여 고통 없이 편히 주무시고, 운동도 하시고, 아들에게 김치도 담가 주시면서 살아 계십니다. 어금니까지 제거해 씹을 수가 없으니 아직 미음만 드시고 있으니 온전한 일상을 다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 또 재발할 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이 제거되고 다시 삶의 의욕을 되찾고 웃음도 되찾으신 어머니를 보면 더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 것만으로 이토록 행복한 일이구나 새삼 깨닫습니다. 간병을 하며 깨달은 것은 암환자에게 절대적인 치료법이란 존재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마다 상태가 다르니 백이면 백가지의 치료법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치료법은 결국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암 치료는 결국 치료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의사보다도 환자나 보호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영원히 살수 없으니 어머니가 얼마를 더 사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고통 없이 살다 간다면 그 또한 행복이 아닐까요. 어쩌면 운이 좋아서 어머니를 잠깐 살린 것일 수도 있으니 내가 암 치료에 대해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치료의 경험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세상의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 삶의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강제윤 | 시인

* 뉴스레터 채비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그동안의 간병일기를 편집하여 4회(35~38호)에 걸쳐 게재할 계획입니다

수의(壽衣) 뒤틀이 중한디?



삼베수의는 일제의 잔재다?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결론이다. 조선시대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서인 <사례편람(四禮便覽)>을 보면 수의의 소재로 주(紬), 견(絹), 백(帛), 금(錦) 등이 제시된다. 다비단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시대 분묘에서 나온 출토복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문관과 무관은 관복이나 갑옷을 입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매우 화려한 한복을 입기도 하였고 천을 덧대어 꿰매 입은 수의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일본은 의례준칙을 통해 삼베수의를 사용할 것을 명문화 하였다. 전쟁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시작으로 쌀, 비단, 면 등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수탈하던 시기였다. 그러니 수의에 비싼 비단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하지만 1925년 김숙당이 편찬한 ‘조선재봉전서’에서 수의의 소재가 고운삼베였다 라고 기록되어있는 것을 증거로 삼베수의가 일제의 잔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가 일제의 의례준칙보다 먼저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미 조선사회에서 삼베수의가 일반화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숙당이라는 사람은 조선총독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이었고 ‘조선재봉전서’가 편찬된 시기가 일제의 식민정책이 문화통치로 바뀌던 시점인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조선재봉전서’에 일제에 입김이 들어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비단 한복은 전통수의를인가

모 대학 전통복식연구소에서 조선시대 분묘의 출토복식을 연구하여 ‘왜곡된 전통 삼베수 의’의 대안으로 전통수 의 제품을 개발해 상품화하였다.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비단 수 의의 가격은 무려 6천만원(가장 비싼 수 의 세트)이다.

조선시대의 ‘예서’에서 이야기된 우리의 전통 수 의가 비단 수 의였고, 출토복식에서도 비단 수 의였음을 확인했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 수 의가 비단 한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사례편람’을 비롯한 예서의 내용도, 분묘에서 나온 출토복식도 모두 양반들과 사대부의 것이었다. 일반 서민의 것은 아니었다.

추측 하건데 대다수의 서민들은 비단수 의는 커녕 관조차 쓰지 못하고 매장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대다수를 제외한 특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한 것을 전통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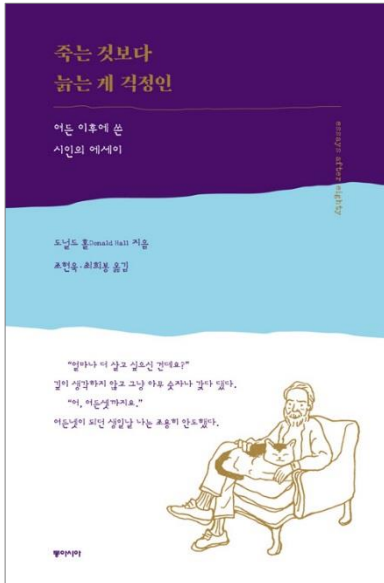
수 의 뒷이 중혈까

염습을 할 때 장례지도사들은 고인의 모습을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드린다. 지저분한 수 의이나 콧털도 정리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는다. 여성의 경우 가볍게 색조화장을 한다. 고인의 입장에서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당신의 모습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 의도 마찬가지다. 고인이 어떤 옷을 입고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고 싶어 할지 생각한다면 어떤 수 의를 입혀드려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아마도 ‘내가 죽어서 마지막으로 입고 가는 옷’을 어울리지도 않는 삼베수 의 라거나 평생 구경 해본 적도 없는 고급 비단 한복으로 입고 가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황순원의 소나기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 아이가 자기가 죽으면 입고 있던 원피스를 그대로 입혀달라고 했던 것처럼 누구나 특별히 아끼는 옷이나 추억이 담긴 옷, 소중한 날에 입고 싶은 옷이 있을 것이다. 어떤 옷을 입고갈 때 가장 좋을지 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입혀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 의문화가 아닐까. 소위 전통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맞물려 가며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양식이라고 생각한다. ✽

박태호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 실장



죽는 것보다 늙는 게 걱정인

도널드 홀 | 동아시아

노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 매일매일 나이 들어가고, 늙은 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배우자나 파트너가 이제 더 이상 곁에 없을 수도 있고, 혼자 힘으로 요리하는 일이 이제는 버거울 수도 있다. 특별한 사건 없는 매일매일이 무료하게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사회적 지위나 가족 관계에서의) 상실감, (신체적) 불편함, (일상의) 무료함과 권태 ... ‘나이 듦’과 함께 노년의 이러한 현상과 감정들이 짐처럼 따라붙지는 않을까? 미국의 계관시인 도널드 홀의 생각은 다르다.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도전하며 살아가던 시간들이 지난 후에도, 인생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고 삶은 계속된다고. 그 삶 또한 빛이 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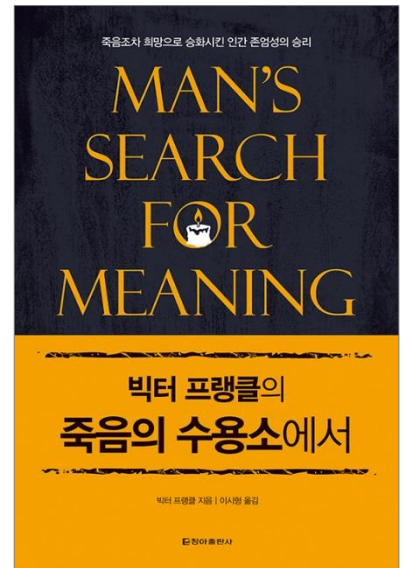
말한다. 여든이 넘어 이 글을 쓴 시인 도널드 홀은 죽음과 나이 듦에 대해 지혜롭고 위트 있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있는 그대로 현재를 응시하고 맞이하는 자세, ‘지금’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불편하고 쓸쓸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매일 비슷한 날들일지라도 죽기 전까지 삶은 이어진다고 말이다. “탄식하고 우울해” 하는 것보다는 “창가에 앉아 새와 헛간과 꽃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편이 더 낫다”고. (출판사 제공 책소개 중)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 청아출판사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정신 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의 자전적인 에세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참혹한 고통을 건조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술회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분석해 정신 치료 기법인 로고테라피를 정립하고, 이 기법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며 읽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전한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부모, 형제, 아내를 모두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잃었고, 그 자신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추위와 굶주림, 폭행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시달렸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의지를 되새기며 마침내 살아남았다. 이 책은 극한 상황에 처했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름 없는 모든 이들이 겪어야 했던 희생과 시련,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해답을 엿볼 수 있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중)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1

장례문화 문제점

‘과다한 장례비용이 가장 큰 문제이다’ 90.3%

- 우리나라 장례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다한 장례비용’으로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문제’, ‘대형 상조회사의 영리추구’ 순으로 응답됨

[그림] 장례문화 심각성 동의률 (매우 심각 + 어느 정도 심각 비율) (n=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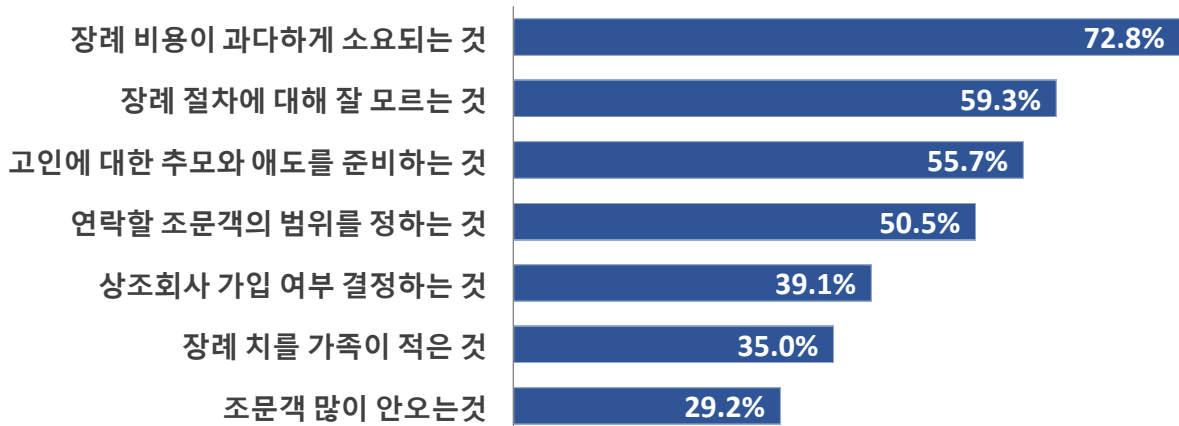
2

장례 준비 애로사항

‘장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이 걱정이다’ 72.8%

- 장례 준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례 절차, 추모와 애도 준비, 조문객 범위 등 절차에 관련된 문제가 응답됨

[그림] 장례 준비 애로사항 긍정률 (매우 걱정 + 어느 정도 걱정 비율) (n=659)



*자료출처: 장례문화 혁신을 위한 인식 조사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외 6개 협동조합 공동 조사. 전국 19세 이상 남녀 659명. 2020)

제1기 예비 상주학교 후기



장례, 어떻게 준비할까?

제 1기 상주학교가 7월 마지막 날에 공간 채비에서 열렸습니다.

미리 준비하기에도 불편하고 가족과 논의하기에도 어색한 장례, 하지만 우리네 삶은 예측할 수 없기에 살아 있는 이 순간에도 나와 가족의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예비 상주학교 강좌를 통해 장례 절차와 장법, 사전 준비와 사후에 정리할 일들, 가족과의 추억을 만들고 기록하는 방법, 그리고 채비 장례의 진행과정과 추모식 소개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솔하고 알찼던 그날의 분위기를 참석자들의 후기로 전합니다



“평상시 경험하지 못했고, 자주 언급하지는 않지만 모든 이에게 찾아 올 일을 간접적으로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OO 조합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예비 상주들에게 매우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 남OO 조합원

“작은 장례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채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김OO 조합원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과 모르던 부분들을 구체화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OO 조합원

“장례의 구체적인 절차와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OO 비조합원

“어머니의 장례에 대해 막연히 생각해 온 고민거리가 명확해지고 해결책도 찾게 되었습니다.” - 김OO 조합원

“구체적인 장례와 관련한 사례를 들을 있어 좋았습니다.” -이OO 조합원

“한겨레두레 조합원으로서 조합원가입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홍OO 조합원

“오기 전 길지않을까 생각했던 4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알차습니다.” -김OO 조합원

“조용하고 아늑한 강의실 분위기와 잘 준비된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OO 조합원

더 많은 분들과 더 편한 시간에 다시 2기 학교로 찾아 뵙겠습니다!

2020. 7. 31. @공간채비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업무협약 체결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서울의료사협)간의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의료사협은 협동의 마음으로 의료를 통한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2002년 6월 창립하였으며, 지역주민을 건강한 주체로 세우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생명존중, 봉사, 교육'을 조합의 3대 정신으로 삼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향후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사업과 모법적인 협동조합 간 협력사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0. 8. 10. @서울의료사협 사무국 건강문화센터

배한호 한의사의 ‘내 몸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 노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몸이 여기저기 고장 나며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당황스러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는 동안 덜 아프고 덜 불편하고 덜 힘들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나는 내 몸을 잘 알고 있을까요. 기능과 특성을 잘 알고 주인으로 살고 있을까요? 내 몸을 바로 알아야 처방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운동과 식생활만으로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 다수의 공중파 방송 출연과 강연장에서 들려준 ‘내 몸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중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건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 취지

- 내 몸을 이해하고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보자.
- 내 몸에 맞는 건강계획을 세워보자.
- 이것을 토대로 부모님 건강관리와 돌봄의 방법을 알아보자.

■ 개요

- 대상: 건강한 삶을 원하는 분. 질환을 앓고 있는 분. 부모님 돌보기를 잘하고 싶은 분 등
- 참가비: 조합원(무료), 비조합원(1만원)
- 신청: 1800-9517, 02)722-9517 (30명 선착순 마감)
- 일정: 2020년 9월 4일(금) 오후 6시30분~8시 30분
- 교육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강의내용

- 나이듦에 대하여(건강 개념과 상식)
- 내 몸 이해하기
- 성인병(고혈압, 당뇨 등) 일상 케어
- 질환 별 식이요법 바로 알기
- 부모님 돌보기

■ 강사소개

배한호 한의사

한방내과 전문의, 한의학박사. 현) 배한호한의원 원장.

다수의 공중파/중편 방송 건강 프로그램 출연

강의: 대전대, 순천향대 등

자문: 대한한 의사협회, 충남한 의사협회, 동북아평화연대, 충남정책자문회 등

저서: 독소를 없애주는 현미채식(경향BP), 천수밥상 (공저, 다운북스컴퍼니)

‘배한호닷컴(<http://baehanho.com/>), 유튜브 <배한호TV>를 운영

배한호한의원 02-596-3223(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13 반포쇼핑타운 7동 3층)

태양광 미니발전기 설치 상담·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태양광 미니발전기를 설치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기는 매월 15~25%의 전기요금을 절약해 주며, 20년간 제품수명을 보장합니다. 안전테스트를 통과한 제품(한화 325W 모듈, LG인버터)만 사용하며, 간단한 시공(30분)으로 콘센트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 모집대상: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서울·경기 소재)
- 서울시 지원 금액: 44만원(서울시 보조금 39만원 + 구청보조금 5만원)
- 자부담: 조합원 부담금 5만9천원(2020년 11월 30일까지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 방법: 솔라테라스 <https://www.solarterrace.net>
(2018, 2019년 연속 서울시 시공 1위, 전국 실적 1위 업체)
- 신청 및 문의: 1566-3221
- A/S: 설치 후 5년(양도와 이전 가능)



① 태양광발전기 설치 준비



② 모듈 조립



③ 인버터 연결



④ 발전기 베란다로 이동



⑤ 베란다에 튼튼하게 고정



⑥ 태양광발전기 설치 완료

미니태양광 설치 과정

* 솔라테라스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업무협약기관이며, 수익금의 일부는 저소득층 장례지원사업에 후원합니다.

7월

백종철 조합원 빙모상
김홍식 조합원 모친상
김진영 조합원 부친상
김재수 조합원 빙부상
이기상 조합원 부친상
정웅교 조합원 부친상

문선유 조합원 아우상
김기성 조합원 부친상
이수자 조합원 모친상
장성모 조합원 모친상
김정주 조합원 빙모상
신상희 조합원 모친상

김윤원 조합원 모친상
염규홍 조합원 부친상
박갑주 조합원 모친상
김상남 조합원 부친상
김명희 조합원 배우자상

6월

임영미 조합원 모친상
성경아 조합원 매씨상
오명철 조합원 모친상
오상석 조합원 부친상
엄홍기 조합원 모친상

백명기 조합원 배우자상
이용규 조합원 빙부상
신남희 조합원 모친상
이영주 조합원 모친상

권월선 조합원 시모상
장종익 조합원 부친상
김윤기 조합원 부친상
전부영 조합원 부친상

5월

이선재 조합원 모친상
진원섭 조합원 부친상
이형철 조합원 빙부상
이광중 조합원 부친상
황보연 조합원 시부상

홍성건 조합원 모친상
박흥섭 조합원 모친상
이종한 조합원 모친상
송재은 조합원 모친상
윤승일 조합원 부친상

이진형 조합원 부친상
유대환 조합원 빙모상
김영수 조합원 부친상
박종석 조합원 모친상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제 31호

[24%의 기적]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채우고 비우고] 우리 삶을 성공이나 실패로 말할 수 있을까
[장례 후기] 두 번의 장례식을 한겨레두레와 함께 했습니다

다운로드

제 32호

[24%의 기적] 이사의 추억
[채우고 비우고] 기억과 사진
[장례 후기] 효도하는 법

다운로드

제 33호

[24%의 기적] 어느 49재
[채우고 비우고] 나의 임종은 어떤 모습일까
[장례 후기]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장례 서비스

다운로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